

1. 화재발생 인지 시 행동방법

- 화재대피 안내방송 : 화재층(○층) 위치를 정확히 듣고, 자신의 위치(화재 상부층, 하부층)를 판단 후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.
[판단] 지금 몇 층에 있는가? / 지상으로 대피할까, 옥상으로 대피할까?
- 비상벨 작동 / 연기 등 발견 : 자신의 위치(○층)보다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, 피난계단의 연기상태와 방향 등을 확인하면서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.
[대피방송이 없는 경우] 발코니, 계단창으로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.

2. 화재발생 시 기본 대피방법

- ① 최우선적으로,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.
- ②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, 옥상으로 대피한다.
[판단] 옥상이 가까운가?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은 열리는가?
- ③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, **피난시설을 활용**하여 대피(또는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)한다.

3. 피난시설 활용 대피(대기)방법 (※ 대상·층·세대별 시설이 다름)

- **경량칸막이 설치대상** :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‘경량칸막이’를 파괴 후 이웃 세대로 대피한다.
[판단] 화재가 우리집 계단라인 인가? / 이웃집 계단라인 이면 사용금지
- **대피공간 설치대상** : 세대 발코니(다용도실)에 설치되어 있는 ‘대피공간’으로 대피하여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.
[판단]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?
- **제연설비 설치 대상** : 엘리베이터 승강장 또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내 ‘급기댐퍼’를 작동 후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.
[판단]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? / 계단 대피중 연기로 대피가 곤란할 때

